



2011년 세계경제 전망(요약)*

세계경제전망 작업팀

1. 2010년 세계경제 평가
2. 2011년 세계경제 환경 전망
3.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4. 2011년 세계경제 주요 이슈
5. 정책 시사점



주요 내용

- ▶ 2010년 초 세계경제는 금융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2/4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이 둔화됨.
 - 중국 등 신흥국은 7.0%대의 고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약 2.5%의 성장률에 그쳐 지역 간 회복세에 큰 차이를 보임.
- ▶ 미국 민간소비 및 부동산시장 회복의 불확실성,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 향방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
 - 지속적 회복의 관건은 미국의 민간고용 증대와 소비확대,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여부임.
- ▶ 2011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해외자금의 꾸준한 유입, 국제적 통화절상 압력 강화 등으로 하락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 국제유가는 2011년 연평균 약 80달러(두바이유 기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석유수요가 완만히 증가하여 유가도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 2011년 세계무역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세계무역 증가는 7%로 둔화될 전망이다(2010년 11%).
 - 국내산업 육성 성격의 보호무역조치들이 주요국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DDA 협상 연내 타결을 위해 주요국간 빅딜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음.
- ▶ 2011년 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연평균 3.5%(시장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높은 실업률과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인해 민간소비 회복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2.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유로 지역은 재정위기 불안과 재정긴축으로 1.6% 성장, 일본은 수출증가세 둔화와 디플레이션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국내투자 및 내수증대에 따른 성장요인과 통화긴축, 위안화 절상선진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증가 둔화의 불안요인이 병존하면서 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 미국 FRB의 제2차 양적완화조치(QE2) 이후 민간고용이 증가하고 소비심리 등 경기선행지수도 뚜렷이 개선되면서 더불립 가능성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판단됨.
- ▶ 아일랜드 사태가 EU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작으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중국은 수출이 불안하지만 내수소비 및 투자는 견조하여 경착륙 가능성은 낮으며, 2011년에도 9.0%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전체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2010년 12월 말에 발표될 예정임.

1. 2010년 세계경제 평가

■ 2010년 초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2/4분기 이후 회복세가 뚜렷이 둔화되었으며 특히 미국의 경기둔화가 두드러짐.

- 수출확대와 정부지출 증가가 신속한 경기회복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나 경기부양효과와 소멸 및 선진국의 내수회복 부진으로 회복세가 꺾임.

■ 중국 등 신흥국은 약 7.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약 2.5%의 성장률에 그쳐 신흥시장과 선진국 간 회복세에 큰 차이를 보임.

- 양 지역 간 회복세에 차이를 보이면서 하반기에는 정책방향에도 차이를 보였는데, 미국은 추가적 팽창정책을 추진하고 신흥국들은 부분적인 출구전략을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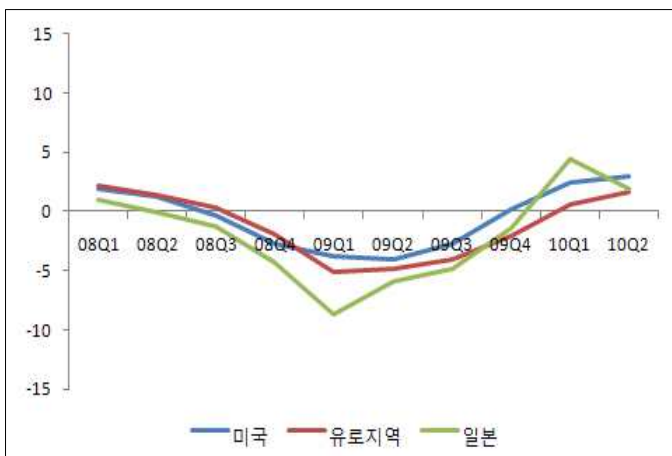
- 성장률 격차는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와 신흥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을 초래해, 환율갈등과 국제적 정책공조의 어려움을 노정함.

■ 미국 민간소비 및 부동산시장 회복의 불확실성,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향방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

- 지속적 회복의 관건은 미국의 민간고용 증대와 소비확대,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의 불확실성 해소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주요 선진국 성장률 추이(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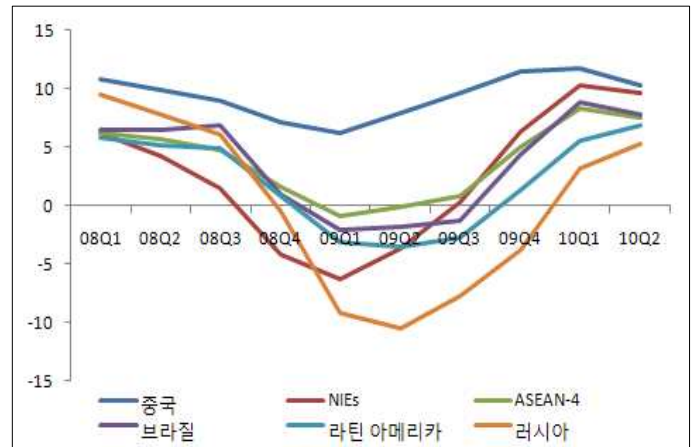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Bloomberg.

그림 2. 주요 신흥국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Bloomberg.

2. 2011년 세계경제 환경 전망

가.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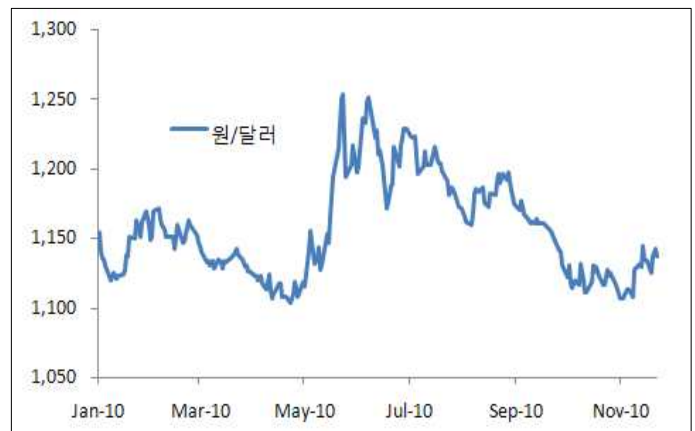
■ 2010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1,250원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최근에는 1,110~1,130원 수준으로 나타남.

■ 2011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해외자금의 꾸준한 유입, 국제적 통화절상 압력 강화 등으로 하락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환율변동의 주요 변수로는 외국자본 유입규제 여부, 경상수지 흑자기조, 기타 대내외 리스크(유럽 재정위기 및 한반도 지정학적 요인) 등이 있음.

그림 3.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원/달러)



자료: Bloomberg.

표 1. 주요기관 환율 전망

기관(기준일)	Q4 10	Q1 11	2011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11/15)	1000	1020	980
Credit Suisse Group(11/12)	1093	1071	1026
HSBC Holdings(11/12)	1130	1110	1080
Wells Fargo(11/12)	1100	1100	1025
Barclays(11/11)	1075	1067	-
BNP Paribas(11/02)	1100	1080	1040
Morgan Stanley(10/28)	1075	1063	1025
Standard Chartered(10/25)	1120	1050	1025

자료: Bloomberg.

나. 국제유가

- 2010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연중 69~87달러 사이의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최근 80달러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 2011년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석유수요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약 80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석유수요의 점진적 상승과 미 달러 가치 하락이 상승요인이 될 수 있으며, 풍부한 원유재고, 유럽 재정위기, 중국 긴축 정책, 선진국의 느린 소비회복 등이 상승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4. 국제유가 및 달러 가치 추이



자료: Bloomberg.

표 2. 주요기관 국제유가 전망

기관 (전망일)	기준 유종	2011년			
		Q1	Q3	Q3	Q4
CGES (10,25)	Brent	79.00	79.40	84.00	-
CERA (11,18)	Dubai	77.71	78.00	80.69	83.04
	Brent	79.23	79.73	82.41	84.32
	WTI	80.50	81.17	84.00	85.67
EIA (11,9)	WTI	83.00	84.67	86.00	87.00
PIRA (10,28)	Brent	84.35	88.00	90.50	93.00
	WTI	84.00	86.65	90.65	93.00

자료: Petronet.

다. 국제통상 환경

- 2011년 세계무역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전 세계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전년대비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국의 국내산업 육성 성격의 보호무역조치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무역 증가율은 2010년 11%에서 2011년 7%로 둔화될 전망이다.
 - ※ 부실산업 지원 등 국내 보호무역조치가 금융위기 중 도입된 무역장벽의 31%를 차지함.
- 이와 함께 2011년 하반기에는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주요국간 빅딜(big-deal)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음.
 - 단, DDA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들의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RTA는 2010년 11월 현재 28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3.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2011년 세계경제는 대체로 금년 하반기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연평균 3.5%(시장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선진국의 느린 회복세와 중국 등 신흥시장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높은 실업률과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민간소비 회복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 지역은 재정위기 불안과 재정긴축, 일본은 수출증가세 둔화와 디플레이션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자국 내 투자 및 내수증대에 따른 성장요인과 통화긴축, 위안화 절상·선진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 등 여러 불안요인이 병존함에 따라 올해와 비슷한 9%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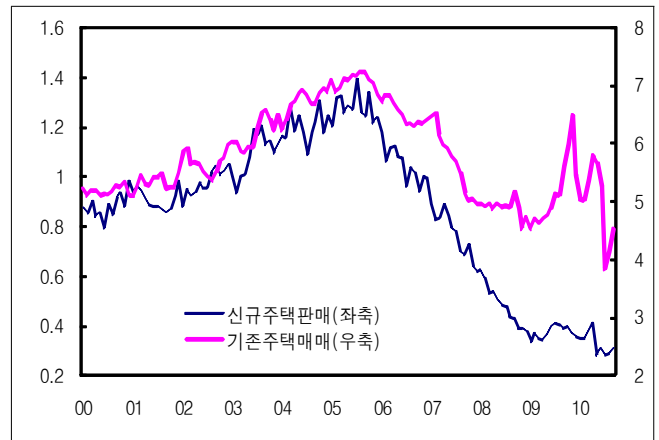
표 3. 세계 국별·지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전망기관 (발표시기)	OECD (2010. 11)		IMF (2010. 10)		Global Insight (2010. 11)		KIEP (2010. 12)	
연도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미국	2.7	2.2	2.6	2.3	2.7	2.3	2.7	2.2
유로지역	1.7	1.7	1.7	1.5	1.6	1.4	1.7	1.6
- 독일	3.5	2.5	3.3	2.0	3.3	2.3	3.2	2.5
- 프랑스	1.6	1.6	1.6	1.6	1.6	1.4	1.6	1.6
영국	1.8	1.7	1.7	2.0	1.6	1.5	1.6	1.9
일본	3.7	1.7	2.8	1.5	3.5	0.7	3.5	1.0
중국	10.5	9.7	10.5	9.6	10.3	8.6	10.1	9.0
러시아	3.7	4.2	4.0	4.3	4.2	4.3	4.0	4.0
브라질	7.5	4.3	7.5	4.1	7.5	4.9	7.5	4.5
인도	9.1	8.5	9.7	8.4	8.5	9.0	8.6	8.5
ASEAN	-	-	7.7	5.3	7.3	5.0	7.5	5.3
중남미	-	-	5.7	4.0	5.5	4.3	5.4	4.2
중동	-	-	4.1	5.1	4.5	5.4	4.0	5.0

그림 6. 신규 및 기존 주택판매

(단위: 백만 채)



자료: Bloomberg.

- 최근 FRB의 제2차 양적완화조치(QE2)로 인해 낙관적 전망이 나타나면서, 민간고용이 증가하고 소비심리 등 경기선행지수도 뚜렷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2010년 10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15만 1천 명 증가로 지난 5월 이래 처음으로 증가했으며, 경기선행지수도 4개월 연속 상승한 111.3을 기록함.

- 현재는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 및 투자가 완만하지만 정상상태로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미국경제는 당분간 “고용 없는 경기회복”으로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나, 양적완화의 효과가 일부 가시화되면서 더블딥 가능성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판단됨.

나. 중국경제 위축 가능성

-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으며, 2010년 10%대의 성장률에 이어 2011년에도 9.0%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둔화에 따라 수출이 불안하지만 내수소비 및 투자는 견조함.

※ 소비재 판매는 3/4분기까지 18.3%의 증가율(10월 18.6%), 고정자산투자도 3/4분기까지 24.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수출증가율은 6월부터 둔화됨(5월 48.5% → 10월 22.9%).

※ 중국은 수출증가율이 -16.0%를 기록한 2009년에도 9.1%의 성장률을 기록함.

4. 2011년 세계경제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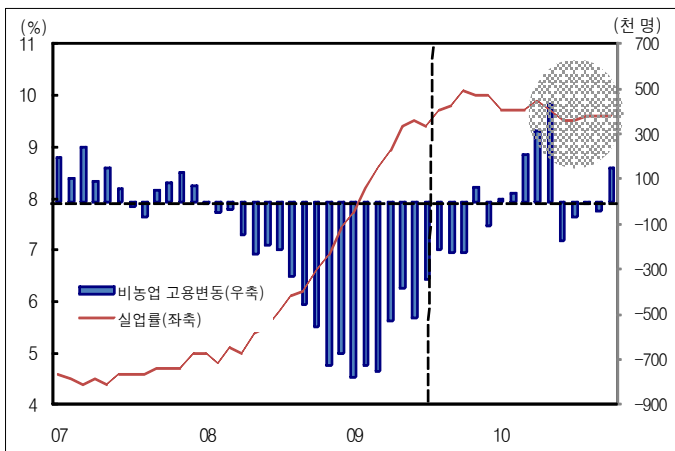
가. 미국경제 더블딥(double-dip) 가능성

- 2010년 하반기 들어 미국경제의 일부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고용시장 및 주택시장 개선 지연으로 전형적인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모습을 보이면서 더블딥 가능성이 제기됨.

-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종료(4월 말) 이후 신규 주택판매 및 주택착공이 크게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9.6%(2010년 10월 현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5. 비농업부문 고용변동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자료: Bloomberg.

■ 단, 2010년 2/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 및 부동산 가격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2011년 거시정책운용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2010년 중 5회에 걸친 기준을 인상(15.5 → 18%, 사상최고 수준)과 10월 19일 기준금리인상(5.31 → 5.56%)을 단행함.

- 실질예금금리가 마이너스로(예금금리 2.5%, CPI 상승률 4.4%) 2011년 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추가로 기준을 및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 2011년 중 환율을 점진적으로 5% 내외로 절상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출입 동향을 고려하여 절상속도를 조절할 것임.

※ 중국은 2005년 7월~2008년 6월까지 매년 7% 정도로 위안화를 절상한 바 있음.

그림 7.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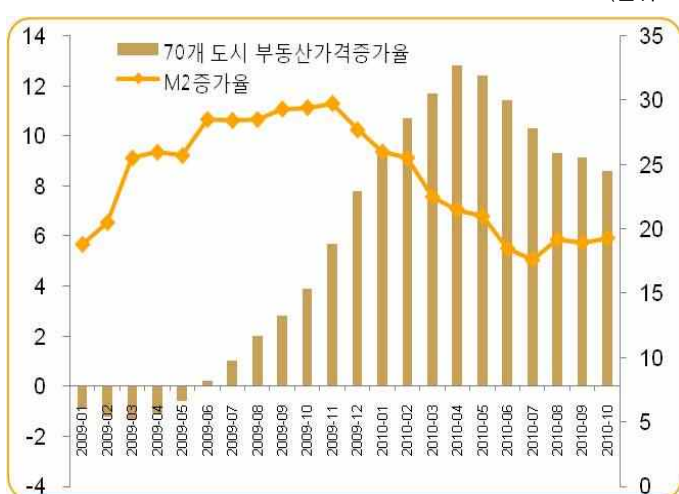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그림 8. 부동산 가격 및 M2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CEIC.

다. EU지역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 지난 5월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에 이어 아일랜드도 최근 IMF와 EU에 구제금융 신청을 결정함(지원규모는 850억 유로로 전망되며, 유로와 IMF가 2:1로 지원).

-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지원으로 인해 아일랜드의 재정상황은 크게 악화됨.

※ GDP 대비 재정적자: 1.2%(2007) → -5.9%(2008) → -14.4%(2009) → -32%(2010 전망치).

■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재정위기가 확산될 우려도 대두되고 있는데, 연쇄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있을 경우 유로지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임.

- 구제금융 시 포르투갈, 스페인은 각각 515억 유로와 3,500억 유로가 필요함(HSBC 전망).

- 독일 정치권(‘질서 있는 파산’)과 일부 싱크탱크에서는 채무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어 재정위기의 추이에 따라 내년에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음.

■ 아일랜드 사태가 EU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작으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영국은행들의 아일랜드 대출규모는 1,485억 유로(전체 유럽 은행의 14%)이며, 영국은행들은 우리나라 은행권 채무의 26%(1위)를 보유함(BIS 2/4분기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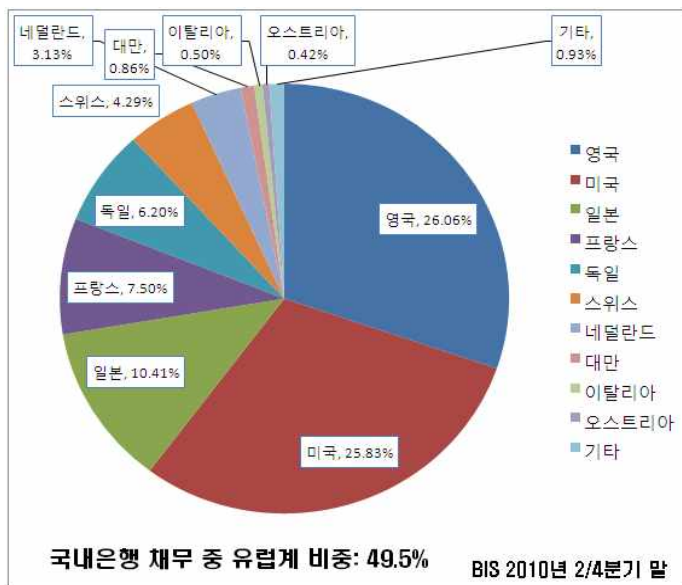
표 4. 주요국 은행권의 PIGS 국가 대출

(단위: 백만 달러,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미국
아일랜드	148,513 14.0%	138,567 7.6%	50,084 2.5%	15,284 2.3%	21,199 3.0%	4,327 1.0%	27,295 3.8%	68,721 5.2%
포르투갈	22,386 2.1%	37,240 2.0%	41,904 2.1%	4,734 0.7%	5,129 0.7%	395 0.1%	2,191 0.3%	3,153 0.2%
스페인	110,845 10.5%	181,648 9.9%	162,439 8.2%	25,556 3.8%	72,665 10.3%	3,674 0.8%	20,997 2.9%	47,091 3.6%
그리스	11,980 1.1%	36,840 2.0%	53,469 2.7%	5,347 0.8%	4,716 0.7%	479 0.1%	1,957 0.3%	7,500 0.6%
EU 27	1,057,461 100%	1,833,625 100%	1,973,803 100%	675,887 100%	703,491 100%	447,881 100%	715,786 100%	1,321,925 100%

자료: BIS.

그림 9. 한국의 대외은행채무 국가별 비중



자료: BIS.

5. 정책 시사점

■ 해외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에 유의

- 글로벌 유동성 증가 및 신흥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추세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으며, 환율의 과도한 절상압력도 발생 가능함.
-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거시적 펀더멘털을 강화해야 하며, 이 밖에도 금융기관들의 외환포지션 관리 강화 등 자본유입 억제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들어 신흥개도국들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투자소득세 부과, 의무에치제 실시, 금융기관 외환포지션 규제 등을 도입하고 있음.

■ 중국 수출증가세 둔화 및 수입구조 변화에 대비

- 2010년 5월 이후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율도 둔화됨(3월 50.8% → 6월 30.7% → 9월 16.1% → 10월 26.6%).

※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70% 정도가 중간재(부품·소재)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둔화 → 중국의 중간재 수입감소 → 한국의 대중수출 둔화로 연결됨.

- 한편 12차 5개년계획(2011~2015년)을 계기로 가속될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에 따라 내수용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대중수출 둔화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수출전략 조정이 필요함.

※ 중국의 권역별, 성별 접근을 통한 내수시장 활용을 극대화하고, 중국 내 조립업체와 한국의 납품업체 간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중 FTA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진입여건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호무역적 환경에 대비

- 장기간의 경제침체가 예상되면서 주요국의 국내산업 육성 성격의 보호무역조치들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우리 기업들에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BRICs, ASEAN, 중앙아시아, 남미 등 신흥경제권으로의 수출선 다변화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표 5. 주요국들이 취한 국내산업 육성 성격의 보호무역조치 사례

국가	지원 내용
미국	● GM, 크라이슬러에 정부용자 제공
EU	● 독일: 저탄소차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영국: 저탄소차 개발자금 대출보증 ● 프랑스: 자국 자동차 업체(르노, PSA)에 대한 저리융자 및 저탄소차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국	● 2009년부터 3년간 저탄소차 기술과 독자 브랜드 개발에 100억 위안 보조금 책정, 소형차 구입시 취득세를 인하
러시아	● 자동차 산업에 61억 달러 보조금 지급 ● 자동차 구입용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도 예정
호주	● 자동차 산업에 38억 달러 보조금 지급

자료: 필자 작성.

■ FTA 비준 및 DDA 협상 대응방안 마련

- 2011년 상반기에는 한·미 FTA, 한·EU FTA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검토하며,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 특히 한·중 FTA에 대비해서 국내 농업부문에 대해 한·일 FTA의 경우에는 국내 부품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하반기에는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한 주요국 간 빅딜 시도가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이행계획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KIEP**

연구진:

* 국번: (02) 3460

박복영 국제거시금융실장 (bypark@kiep.go.kr, Tel: 1149)

김준동 무역투자정책실장 (jdkim@kiep.go.kr, Tel: 1028)

지만수 중국팀장 (jmansoo@kiep.go.kr, Tel: 1201)

강유덕 유럽팀 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1123)

오승환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원 (ohsh@kiep.go.kr, Tel: 1228)

고희채 미주팀 전문연구원 (hcko@kiep.go.kr, Tel: 1086)